

아들

Der Sohn

1. 어원 및 개념정의

가족 구성원의 다른 이름들(어머니Mutter, 딸Tochter)과 마찬가지로 Sohn의 기원도 인도-게르만어까지 올라간다. 중고지 독일어^{mhd}에서는 sun, 고고지 독일어^{ahd}에서는 sun[u], 고트어에서는 sunus이다.

영어의 son이나 스웨덴어의 son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인도 게르만어에서 아들을 뜻하는 단어는 sunu-s 인데, 이 단어는 애를 낳는다는 동사의 어간인 seu- 혹은 su-에서 유래한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아들은 집안의 혈통을 이어갈 존재로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자신의 피를 이어갈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신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행동이다.

아들이 연루되는 갈등은 주로 이러한 집안의 체계모니와 관계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도 결국은 집안에서의 주도권 다툼의 일종이며, 프로이트는 아들이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를 적대시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형제간의 갈등도 결국 누가 집안의 물질적 정신적 권위를 이어받느냐에 관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세대차이가 갈등의 원인인 경우,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유로운 자아실현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결국 파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들과 어머니 사이는 순조로운 것으로 묘사되는 편이다.

2. 모티프 발달사

아들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지고 오래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다.(누가복음, 15장, 11-32절) 한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갔다가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따뜻하게 받아준다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문학적 형상화의 원형을 이룬다. 인자한 아버지와 타락한 아들,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언제나 다시 찾아가야만 하는 위안의 존재로서의 아버지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이 성경에서의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비유이다.

이 비유는 또한 형제간의 갈등의 씨앗도 보여주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고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큰 아들은 이러한 환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가족 내에서의 형제간의 갈등의 예고이기도 하다.

타락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늘 인자한 것만은 아니다. 공동체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타락한 아들을 가혹할 정도로 징벌하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들이 떠난 집은 근면함과 절약이 있는 곳인 반면, 아들이 집을 떠나 들어간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장소

이다. 집을 떠났던 아들이 후회하면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집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와 힘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에는 갈등이 없다.

이와는 달리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화해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고 아들은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집에서의 헤게모니를 놓고 서로 대립하게 된다. 이들의 대립은 개인적인 성격차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를 기성세대의 상징으로 여겨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모로: 오이디푸스와 스피크스>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아버지가 개입한다. 어머니는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의 원인이 어머니를 사이에 둔 성적인 욕망인 경우, 보통 아들과 어머니의 근친상간이 아버지에게 알려지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비극으로 끝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놀트 브론넨의 작품 『아버지 살해 Vatermord』에서 아들 발터는 아버지를 죽이는데, 그 이유는 그와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의 현장을 아버지에게 들켰기 때문이다.

3. 모티프 유형

1) 타락한 아들과 인자한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에게 불합리하게 저항하는 아들의 모습이 가장 전형적인 아들의 상이다.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아들은 아직도 미성숙하고 서툴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만, 세상을 경험하면서 가정/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화해한다.

2) 완고한 아버지와 저항하는 아들

가정 안에서의 아들의 위치는 늘 아버지와 관계에 자리매김 된다. 즉 가정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아버지와 그에 저항하는 아들의 구도가 일반적인 부자갈등의 구도이다.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아버지가 보수적인 것은 당연하다. 그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복종을 명령한다. 이러한 아버지에 순종적인 딸과는 달리 아들은 저항한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는 수밖에 없으며, 극단적인 경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카프카의 『선고』, 『변신』)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갈등은 또 다른 과격으로 치닫게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가기도 한다.(하젠클레버 『아들』)

3)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 사이에 어머니가 위치한다, 아버지와 갈등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서 아들은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이를 알게된 아버지를 아들이 살해한다. 브론넨 『아버지 살해』

4) 형제와의 불화에 시달리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로 다른 아들의 모함을 통해서이다. 즉 형제간의 불화를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멀어진다. 물론 마지막에는 나쁜 아들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를 한다.(셀러의 『군도』)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아들로 인해 갈등의 원인)	형제/부자간의 갈등
	어머니에 대한 집착
	부부간의 불화
	가난
	아버지의 박해
	아들의 우유부단
	가족 구성원에 의한 따돌림

	가족 간의 정치적 견해의 차이
	부모의 무능력
	부모의 무관심
과정	아들이 집을 떠남
	아들의 타락
	아버지에게 반항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
	가족 구성원간의 반목
	아버지/어머니의 가출
	아들의 경제적 성공
	형제의 음모
결과	아들의 귀향
	자아의 발견(아들)
	부자/모자간의 화해
	가족의 복원/해체
	살인
	형제에 대한 복수
	용서
	어머니/아버지의 죽음 부자간의 증오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아들 Der Sohn』*

작가	하젠클레버 Walter Hasenclever (1890-1940)
장르	희곡
생성년도	1914
등장인물	아들: 자라면서 한 번도 자유를 느끼지 못했고 또한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못하고 순박한 편이다. 그는 자유와 삶의 환희를 꿈꾸지만 스스로 현실을 변화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 하지만 여자 가정교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나 클럽에서의 연설을 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된다. 아버지: 완고한 원칙주의자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 의

* 장순란(역): 아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p>무, 성실함과 명예 등이다. 집안에서는 무소불위의 독재자이다.</p> <p>친구: 아들보다 2살 연상이다. 그의 세계관은 냉소적이고 건전하지 못하다. 그는 혁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는 하지만,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4막에 나오는 친구는 전략가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는 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p> <p>여자 가정교사: 아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한다. 현실 감각이 있어서 아들이 같이 도망가자는 제의를 거절한다.</p>
--	---

5.1. 내용 요약

1막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는 20살의 아들의 내면세계가 남자 가정교사, 친구, 여자 가정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여 늘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아들은 대입자격시험에서 의도적으로 떨어진다. 그는 자살을 결심하나, 자신에게 부과된 운명을 인식하고 자살을 포기한다. 이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자 가정교사를 통해서 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2막

아들의 새로운 의지가 구체화된다. 고양된 삶의 감정에 충만하여 아버지에게 호소도 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항의도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망한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하며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집을 도망쳐 나온다. 이때 친구는 절대적 삶을 위한 의무를 아들에게 주지시키면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추긴다.

3막

친구는 아들을 “환희의 유지를 위하여 Zur Erhaltung der Freude”라는 비밀모임으로 인도한다. 이곳에서 그는 친구의 최면술에 걸려서 ‘모든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자’는 요지의 연설을 한다.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서 ‘아버지 살인’이라는 구호까지 나오게 되고, 아들은 집회 참석자들에 의해서 혁명의 선구자이자 선언자로 추대된다.

4막

아들은 창녀와 같이 자면서 현세적 삶에 몰두한다. 이때 친구가 나타나서 이러한 감각적 삶을 통해서 얻는 성적 희열과 걱정을 ‘아버지 살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유도한다.

친구는 아들을 설득한 후에 독약을 먹고 자살한다.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경찰에게 아들은 체포된다.

5막

아버지는 아들을 심하게 꾸짖는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는 일어나지 않고 점점 더 고조된다. 아들은 미리 준비해간 총을 아버지에게 겨눈다. 하지만 아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유형:** 아버지와 아들사이의 세계관의 차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신하면서 생기는 갈등.

-**서사구조:** 아버지가 아들을 불신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극복하고자 아들은 나름대로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원인	아버지가 아들을 억압 아들의 저항
과정	아들의 가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다.
결과	죽음

6. 작품 목록

쉴러 Friedrich Schiller: 『돈 카를로스 Don Carlos』 (1787), 『군도 Die Räuber』 (1782)

헤벨 Friedrich Hebbel: 『마리아 막달레나 Maria Magdalena』 (1844)

하우프트만 Gerhart Hauptmann: 『평화의 축제 Das Friedensfest』 (1890)

베데킨트 Frank Wedekind: 『봄의 잠깨임 Frühlingserwachen』 (1891)

하젠클레버 Walter Hasenclever: 『아들 Der Sohn』 (1914)

카프카 Franz Kafka: 『선고 Das Urteil』 (1916), 『변신 Die Verwandlung』 (1916)

브론넨 Arnolt Bronnen: 『아버지 살해 Vaternord』 (1920)

괴펜 Wolfgang Koeppen: 『로마에서의 죽음 Der Tod in Rom』 (1954)

뮐러 Heiner Müller: 『아버지 Der Vater』 (1958)

발저 Martin Walser: 『검은 백조 Der schwarze Schwann』 (1964)

렌츠 Siegfried Lenz: 『독일어 시간 Deutschstunde』 (1968)

7. 연계 모티프

가족, 근친상간, 억압, 투쟁, 권력, 소통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 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갈등 + 아들 +가출 + 성장
스토리	아들의 모든 것이 미덥지 않아서 아들을 끊임없이 미성숙하다고 욕박지르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